

## <한국근대미술-전통과 문명의 갈림길에서>

박영택(경기대 교수, 미술평론가)

### 3. 신문화의 수용, '미술'과 '미술계'의 등장

**전람회** 미술전람회가 미술활동의 필요불가결한 요소로서 정기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후반 프랑스. 우리나라에서 전람회 제도는 인공과 천연의 '만유물품'을 특정한 장소나 시설에 일정 기간 진열·공개하여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한 개화기의 박람회를 통해 태동, 1910년대 들어와 미술 전람회는 흥행성을 질게 띠면서 전개되는 한편, '신작품'의 경우, 공모전과 단체전, 개인전의 초기 형태를 통해 점차 근대적인 창작미술로서의 전람회 미술로 이행. 창작미술의 분류와 유통, 공공화, 이념 및 주제, 양식, 비평과 인식 등이 주로 전람회라는 공람제도를 통해 발생하고 형성되기 시작했다. 1900년대 후반에 대두되어 1910년대를 통해 미술은 이제 '정'의 충족과 '미'의 추구라는 특질을 받아들이면서 근대적인 '예술'로 범주화 되어갔다. 1910년대 전람회는 '미술'을 사회와 매개하는 장치로 기능하면서도 작가의 창작 발표회장이란 개념보다 매상 장소로서의 성향이 더 강했다. 미적 체험과 예술적 지각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대부분 진기한 구경거리 또는 풍류적 호사나 흥행과 행락의 일환으로 여겼던 것이다. 반면 '미술'창작 및 감상의 메커니즘에 깊이 파고들어 그 일부를 구성하기 시작한 것은 1921년부터 개최된 서화협회전과 1922년에 창설된 관설 공모전인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해서였다.

**미술** 미술은 개화기를 통해 문명개화 및 신지식의 용어로 도입되어 '서기'의 측면에서 예술과 조형예술, 기예와 미려라는 이원적 이중성을 지니면서 유통되었다가 1910년대를 통해 근대적인 조형예술과 미려의 의미로 개념 통일.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국민국가 수립의 기획주체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당시 조선의 지도급 인사와 지식인들이 민족적 발전과 실력양성을 위해 정신문명인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면서, 낭만주의와 칸트 등의 독일 관념론 미학에서 기인한 유미적이고 자율적인 근대 예술론에 주목하였다. 이후 '미술'도 '미'를 추구하는 정신작용으로서의 '정'에 기반 한 심미성과 순수한 조형성이 중심을 이루는 방향을 나가게 되었다. 1910년대에 회화와 조각은 순정純正미술이고 미술적 의장을 나타낸 공예 등은 준미술이라면서 순수미술과 응용미술로서 차별하여 인식하기 시작했다. 1920년대부터 자율을 표방한 예술문화주의적 근대미술로 본격적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자국미술사와 전통에 대한 관념도 이와 같은 측면에서 구축되기 시작한다.

**3.1 민족해방운동의 전개와 좌절** 1919년의 반제국주의적 독립내셔널리즘과 연대된 3.1 독립운동으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이 '문화적 정치'로 바뀌었다. 이에 수반되어 기존의 사회진화론적 실력양성론과 함께, 1910년대를 통해 대두된 정신문명 우위의 문화론이 확대되고 확산되었으며, 자본주의 근대사회와 문화로의 본격적인 '신조선건설'·'신문화 건설'운동이 전개되었다. 3.1 운동은 민족운동역량을 개량화시켜 식민지 체제 안으로 편입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른바 문화통치를 통해 조선사회 개조운동을 실현해나갔다. 이는 고유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서구 문화를 이식하고자 하는 실력양성론자들이 식민지

지식인 사회를 주도해나갈 발판이었다. 일제는 조선인을 일본 국민국가의 새로운 일원인 '신부국민'으로 육성하고 장차 대등하게 하여 황민화 하여 정신적 문화적 결합에 의해 '융화'를 꾀하였다. 자본주의적 근대문명론과 일선동조론의 차이성과 동질성을 양면으로 활용하여 기획된 내선융화의 동화주의 구현을 통해 식민지 지배를 근원적으로 안정시키면서 합병을 영구화하려고 획책했으며, 이를 위해 이른바 문화정치를 시행한 것이다. 당시 도쿄의 유학생 출신을 주축으로 한 신지식층과 민족 우파들은 조국이 식민지로 전락함에 따라 부강한 근대 국민국가 수립의 기획주체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3.1 독립운동도 좌절로 끝나자, 신부국민으로서의 민족 또는 개인의 교양 향상과 실력 양성을 위해 정신적 문화적 개조와 개량 개선을 촉구하였다. 한편 세계는 1 차 세계대전 1914-1918 으로 고조된 유럽 발 서구 근대위기에 의해 기존의 이성적 객관주의에 대한 개조론이 풍미하였다. 1920 년대에 이르러 문화주의 도구로 실행되면서 식민지 근대화로서의 개조, 개량화와 '다이쇼 데모크라시'등과 결부되어 서구 모더니즘 수용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객관주의 지향의 계몽에서 주관주의를 강하게 내포한 개조 담론으로 전환되면서 근대미술은 형성기에서 심화기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1920 년대는 거의 모든 미술가들이 실력양성운동이란 이념 범주에 속해 있었다. 수묵채색화가와 유채수채화가들의 활동 근거지는 **서화협회전람회**와 **조선미술전람회**였다.

**서화협회** 개화기의 서화는 일제와의 합방기를 전후하여 친일 귀족 및 문인 유학자들이 조성한 한문과 유교 부흥풍조와 결부되어 조직화된 진흥을 모색하였다. 서화미술원이 1912 년 6 월 1 일, '청년화가'를 양성하는 강습소 기능을 중심으로 '서화미술회'라는 이름으로 재설립 되면서 한국 근대 전통회화의 전개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안중식, 조석진, 김응원의 발의로 후진 양성을 위해 서화미술회를 만들었다" 당시에는 풍류교양을 위해 배우러 온 기생들이 많았다. 서화협회는 "신구 서화계의 발전, 동서미술의 연구, 향학 후진의 교육 및 공중의 고취아상을 증장케 함을 목적"으로 발족되었다. 이도영의 주도로 1921 년부터 시작되어 1936 년까지 지속, 교회동의 독주와 이를 비판하며 반관적 재야전으로 성격을 전환하려 한 후배서양화가들의 불화와 재정난으로 인해 1936 년 15 회전을 끝으로 해산, 해방 이후 조선미술가협회로 다시 결성되어 지금의 한국미협으로 이어졌다.

**조선미술전람회** 1922 년 식민지 조선의 미술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창설된 총독부 주최의 조선미술전람회, 일제 강점기 유일의 관설 공모전으로 한국 근대미술의 형성과 전개에 심대한 영향..1910 년대를 거치면서 전람회 미술로의 전환이 조성되었고, 이와 더불어 '시각=조형예술'로서 미술개념의 수립과 범주화를 심화시키면서, 작가상과 작품성의 관학화와 미술저널리즘 및 근대 관중의 성장을 초래하기 시작..이들 양상이 조선미전을 통해 제도화되고 공식화되었다. 조선미전이 공모부문을 분류함에 따라 제 1 부인 동양화와 제 2 부인 서양화 조각이 대중을 이루는 회화중심의 순정미술 구조로 재편되면서 화단 위주의 미술계가 탄생했으며 준미술인 공예와 건축은 하위 장르로 구조화되었다. 사진과 판화 삽화 만화를 비롯한 복제미술 또는 인쇄미술이나 대중미술은 미술계 여영의 외곽으로 밀려난 주변화 되었다.

선전은 고대에는 찬란했으나 조선왕조의 유교에 의해 황폐해진 조선=한국미술을 부흥하는 신흥 예술조선의 상징으로 장려, 미술이 민족 내지는 국민과 국가주의 차원에서 심미적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고 정체성을 조성하는 주요 매체로 부각되고 담론화 하는 풍조를 확산시키게 된다. 한편 공모부문에서 조선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본 관전에서는 배제된 서예를 미술로 인정, 서를 제 3 부로 배정하였다. 서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동경미술학교 교수 및 일본의 관변작가들이 심사하였다. 이들은 조선의 전통적 특징과

미학을 반영하고 조선의 고유한 미술과 특수한 표현력을 발휘할 것을 강조했는가 하면, 특색 있고 독자적인 반도미술의 건설과, 1930년대 이후에는 흥아주의에 의한 동양적 모더니즘을 구성할 조선색이나 향토색을 권장하였다. 이는 근대 일본의 지방주의와 지방색 장려 및 보호책과 결부된 측면이 있었다. 한편 선전은 관변출세형의 작가상을 형성시켰다.

**전통회화인 수묵채색화**는 1920년대 접어들어 수묵채색화는 이념과 양식을 가리지 않고 모두 낡은 것, 열등한 것, 봉건적인 것으로 몰렸다. (조선미술비하론이 창궐) 조선화와 일본화의 공존을 모색해야 했으므로 동양화라는 이름으로 개조되어 중세적인 차원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전람회 창작미술로서 새로 태어났다. 동양화란 명칭은 1888년 경도시립예술대학의 전신인 경도부화학교에서 2과인 서양화와 대칭되면서 한화인 남종·북종과 일본화인 동종 3파를 총칭하는 의미로 1과를 동양화로 지칭 한데서 유래. 동양의 그림이란 뜻으로 메이지기에 만들어진 용어다. 수묵채색화가들은 형식주의 심미론을 바탕으로 삼으면서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혁신을 꾀하거나 일본화풍을 이식, 서화미술회 출신의 이상범과 노수현, 변관식, 이용우는 1923년 동연사를 조직, 동도서기가 아닌 동서미술의 절충 또는 융합을 통해 이 분야의 개량화에 앞장섰다. 이들은 종래의 우주적 조화물인 탈속적 군자풍의 산수경물에서 벗어나. 민족의 영역인 국토의 세속적이며 향토적인 무명경관=보통경관을 거주자의 심미적 생활적 감성으로 다룬 것이다. 일상적이며 생활적인 현실경을 창작 주체의 시각적 사실성에 기초한 원근법과 입체법에 의해 나타낸 것으로, 수묵풍경화인 사생적 산수화의 특성을 지닌다.

## 서양화

1926년경부터 서양화가가 동양화가보다 양적인 우세를 보이면서 근·현대화단을 주도하였다. 일본에 건너가 유채화를 배운 소수 작가들이 조선문화운동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화단의 중심을 차지했다. **고희동** 한국미술사에서 최초로 '서양화'를 전공한 미술가는 고희동 1886~1965이다. 제주 고씨 역관 집안의 출신, 도화 업무도 맡아 보던 장례원의 예식관으로 재임 중, 1909년 2월 15일부로 "미술연구를 위해 일본국 동경으로 출장 명"을 받고 가게 된 것이다. 동경미술학교에 1896년 설치된 서양화과, 구로다 세이키 1866~1924가 파리 유학을 통해 습득해 온 신고전주의 형태 묘사법에 인상주의 색조를 결합한, 아카데미즘화된 인상주의 또는 인상파적인 아카데미즘으로서의 외광파 양식을 반영, 김관호 1890~1959는 동경미술학교수석 졸업생이면서, 문전의 특선작가로 금의환향, 고향인 평양의 재향군인회 연무장 건물에 주로 평양과 공주 풍경을 그린 50점의 유화를 진열하고 한국인으로는 최초의 서양화 개인전을 열었다. 문전의 특선작인 <해질녘>은 몸을 뒤로 돌리고 선 나부의 한쪽 다리에 중심을 둔 앙슈망 자세와 허리를 약간 앞으로 구부리고 머리를 빛는 모습, 아마도 이러한 누드 자세는 미술학교 실기 시간에 습작으로 많이 다루어졌을 것, 이완과 긴장의 자세를 취한 신체 뒷면의 이상적인 나체미와 함께 해질녘 황혼의 외광적 효과와 그 서정적 분위기 묘출을 의도했던 것, <해질녘>은 탁월한 기량과 함께 황혼 무렵의 나부가 표상하는 식민지 조선의 이미지를 환기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주목. 근대 일본의 아카데미즘 경향이 국내로 유포되어 서양화의 골격을 형성했다. 당시 유채화가들은 서구 인상파 또는 사실주의 양식과 기법을 이식해 조선의 자연과 풍물을 그려나갔다. 일본의 아카데미즘 서양화풍의 근간을 이룬 고전적 사실주의 또는 낭만적 자연주의와 인상주의가 혼합된 정취적 사생주의 경향을 지닌 외광파의 관학풍이 주류를 이루었다. 김종태 1906-1935는 객관적인 사실주의 경향과 외광파 관학풍과는 다른 주관적인 대상 파악과 대담한 구도, 수묵화의 운필을 연상시키는 활달한 붓질에 의한 직정적이고도 간결한 표현..최다 특선, 국내파 화가를 중심으로 추구된 신남화 경향에 수반된 유화기법의 조선화

**조각가** 1915 년 동경미술학교 조각과 이조부에 입학한 김진석(재학 중 사망), 두 번째로 입학하여 졸업한 김복진(1 호), 그는 로댕류의 감성적인 작품과 고전적 사실주의 양식을 절충한 관학풍을 반영했다.

**소집단** 직인적인 미술가들이 봉건적 예속에서 벗어나 창작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근대에서부터 미술의 역사는 창작방향의 의식적인 모색인 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미술가들은 종래의 특정 주문 층의 예속에서 벗어나 고유한 개인으로서 자기표현의 권리와 의무를 획득했지만, 새로운 수요자의 확보를 위한 대중선전으로서의 전시활동 등, 유통관계와 결부된 새로운 취향의 양식 창출에 대한 변혁적인 욕구를 주도하기 위해 서로 비슷한 주장과 뜻을 지닌 작가들끼리 하나의 구성체를 조직하는 일이 긴요했다. 기존의 제도와 기성세대의 경향을 거부하고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힘을 합쳐서 노력하거나 투쟁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소집단미술운동) 토월미술회 1923 고려미술회 1923 삭성회 1925 등

**사회주의미술운동** 1922 년 사회주의 노동운동이 싹을 틔우기 시작 김복진. 안석주. 이여성이 그들이다. 1923 년 김복진의 민중·민족을 위한 미술론은 '예술로써 도덕. 정치. 종교와 융합'할 것을 제창하는 것으로, '인간 노동의 환희 표현'을 핵심으로 삼는 것 프롤레타리아 예술운동에 참가하면서 신문 풍자화를 그렸고, 공장이나 가두에서 전단 및 연극 무대장치 운동을 펼쳐나갔다. 특히 이들은 민족주의 사상을 끌어들이므로써 '조선의 사상과 감정. 향토성. 현대의 조선심'을 불어넣고자 하는 흐름을 만들어 나갔다. 조선주의 미술론은 민족미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식민지 미술가들의 의지였다. 프로예맹 서열 1 위 중앙위원과 조선공산당 책임비서를 지낸 그는 공산당 재건사건의 주모자로 1927 년 검거, 5 년의 옥고를 치렀다.